

마약처럼 ‘나’를 유혹하는 유럽의 길, 역사, 예술가의 혼과 나는 정담



소설가 함정임 씨(39)가 그만의 인문학적 사유가 담긴 유럽 예술여행기 《인생의 사용》과 유럽 묘지기행서 《그리고 나는 베네치아로 갔다》를 동시에 출간했다.

파리는 이방인의 자유가 허용되는 공간이다. 함정임 씨는 ‘세사비(그 사람 하는 대로 내버려두라)’와 ‘톨레랑스(관용)’로 알려진 파리에서 일 년 중 30일의 삶을 ‘사용’한다. 그는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 온몸을 감싸는 예술가들의 혼이 여행길의 동반자가 되어 자신의 손을 잡는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사용》은 함정임 씨와 파리, 파리의 예술이 함께 정담을 나누는 기록이다.

“파리에 관한 책은 많은데 저도 똑같은 동어반복을 하고 싶진 않았습시다. 시

간과 장소가 제한된 패키지여행은 무의미하거든요. 한 장면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느낀다는 데 제가 생각하는 여행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여행을 통해 인생을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그는 파리를 만나면서 그곳과 관련된 예술가들을 끊임없이 동경하고 그들의 작품을 거듭 내면화한다. 그는 작은 골목과 거리를 지나치지 않는다. 곳곳에 숨은 예술가들의 영혼과 정신적 교류를 하며 자신의 앎을 확장시켜 나간다. 위고, 보들레르부터, 로랭, 렘브란트 같은 화가 그리고 음악인 에디트 피아프까지 그와 대화를 나누는 예술가는 장르를 뛰어넘어 함정임의 느낌 속에서 융해된다.

그가 파리와 첫 대면을 한 것은 1992

년 7월이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한 후 프랑스 문학 전문 출판편집자로 일하면서 누구보다도 일에 열정을 쏟은 그는 여행을 통해 삶을 전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남편인 소설가 고故 김소진 씨를 만나 열정적인 사랑을 했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여행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1997년 김소진 씨가 떠난 후에도, 아이가 커버린 후에도 그는 파리와 인연을 놓지 않는다. 이유는 파리를 비롯한 유럽 세계와의 만남이 자신에게 마음의 여유와 평안, 너그러움을 전해주기 때문이었다.

“누구나 본향과 같은 환경적인 뿌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의 반 타의 반 불문과에 들어갔는데 프랑스 시와 현대 부조리극에 심취하게 된 것, 그리고 소설가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것 모두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파리를 만나게 된 것도 알 수 없는 인연의 끈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행에 나서면 그는 머물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다. 파리 7대학 동양어학부 한국어과 교수로 있는 M과 저자의 가장 오래된 이성친구 J 등이 책 속에 등장한다. 하지만 그는 파리 거리 곳곳에서 사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혼자 다니는 습관을 기른다. 빠른 걸음보다는 적당한 속도를 유지한 채 공간을 둘러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제 식으로 여행을 하면 파리에 열흘을 머무는 게 중노동이 돼요. 쉬지 않고 기



《인생의 사용》 함정임 글·사진 | 해냄출판사 | 292쪽 | 값 10,000원
 《그리고 나는 베네치아로 갔다》 함정임 글·사진 | 중앙M&B | 200쪽 | 값 9,000원

차를 갈아타며 여행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파리와 같이 변함없는 문화적 풍취를 보여주는 곳이 경주인데 지형과 풍치, 산세같은 것들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며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 파리와 경주의 문화적 맥락이 마음에 듭니다.”

파리에 도착할 때마다 떠났던 자식이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듯 노트르담 대성당을 먼저 찾는 그는 파리를 위안의 장소로 여긴다. 그래서인지 그의 감성들은 파리의 안식 속에서 더욱 예민해진다. 그는 비운의 예술가 카미유 클로델의 저택에 들러 그녀를 어루만져 주고, 레오 카락스의 영화 <퐁네프의 연인들> 속 ‘천국’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여행기에는 스스로 ‘낙원’이라고 부르는 파리에서 느끼는 지적, 감성적 충만함이 가득하다.

“파리에는 여섯 개의 역이 있어요. 파리가 센터가 되어 국내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연결하는 방사형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죠. 그것이 파리의 특징입니다. 모든 역들이 파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유럽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런 점은 철도가 가진 영화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스크린 위의 영상을 보듯이 객차에서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기차가 영화를 대변하는 것 같죠. 철도, 시간, 속도와 같은 것들은 매우 매력적인 이미지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여행에 포함됩니다.”

그는 꿈이 또 다른 꿈을 불러온다고 말한다. 파리에 있으면서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또 다른 꿈을 안고 여행을 계속하

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베네치아로 갔다》역시 이같은 과정으로 나온 유럽예술 묘지 기행서다. 함정임 씨는 베네치아로 떠남을 청춘시절 그를 사로잡았던 영혼들을 만나는 과정으로 여긴다. 그는 묘비를 따라가면서 많은 것들을 회상한다. 대학에 들어가 처음으로 보들레르의 시를 낭송했을 때를 떠올리고, 짐 모리슨의 묘를 찾은 진지한 젊은이들을 보며 카메라를 들이댈 엄두조차 낼 수 없었음을 밝힌다. 그는 이탈리아 묘지 기행에서도 함정임 고유의 사유를 펼친다.

“파리는 정착지라기보다는 다음 여리를 가는 과정에 있죠. 파리에 가는 것은 그곳에 있다가 노르망디와 같은 다른 지역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8살 되었을 때 함께 이런 여행을 했었는데 아이에게 한정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여행에서 본 것들을 개성 있는 앵글로 담아낸다. 유럽 여행서에서나 보던 경직된 구도의 건물과 사람들 대신 함정임 씨 고유의 눈으로 본 세상 풍경들이 책 속에 담겨 있다.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거기였구나’ 하며 감탄할 만큼 다른 곳으로 보이도록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피사체의 윤곽이나 규격을 그대로 담아내는 게 아니라 그 피사체가 내 심상에 들어온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다양한 각도를 찾습니다.”

이렇게 확보해 둔 사진 자료들을 그는 예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공개한다. 현재 인터넷 서점 ‘yes24’의 ‘Bookian’

에 연재하는 미술 에세이에 내보인 사진들도 여행 때 찍어온 작품들이다. 그는 이런 작업들을 ‘여행의 연장’이라 말한다.

“저의 개성과 기호에 마약 혹은 마술처럼 걸려들면 그것을 탐구하고 싶어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두 권의 책 역시 여행을 통해 인생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새벽 2,3시에 잠이 들면 7시에 아침을 시작하고 8시 35분까지 아이를 등교시킨다. 보통의 주부들과 다를 리 없다. 그러나 하루 약 30분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산책로를 달리는 여유를 갖는다. 그리고 정해진 시각에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는다. 이런 부지런함으로 곧 출간될 어린이 창작동화를 준비했고, 여러 매체의 연재를 소화해 냈다. 그리고 내년에 발표할 소설을 준비중이다. 그는 이렇게 많은 곳에 열정을 쏟다가 또다시 파리로 떠날 날이 왔다고 말한다. 내일이다. 그 전에 그는 좋아하는 흥대 거리부터 여행해 본다. 그에게 여행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길과의 대화며 길 속에 담긴 문화와의 소통이다. 그렇기에 그가 낸 두 권의 저작은 만보漫歩하기 좋아하는 그와 길, 역사, 예술의 부담없는 대화록이나 다름 없다. ☞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